

## 15 일 사이에 강진이 세 번!

“어어, 흔들린다 흔들려!” 지진입니다. 얼마 전 짜안주르에서 지진이 나서 300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는데, 같은 서부 자바 다른 지역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반둥에서 차로 두세 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서 15 일 사이 연거푸 세 번이나 진도 6 에 가까운 강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진이 원치 않는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망연자실해하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지진 대국 인도네시아의 아픈 현실을 보는 듯합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내진 설계 같은 것은 거의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진의 두려움은 곧 세상의 종말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시급하게 복음 전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국에서 가져온 구슬 퍼즐을 가지고 시골 아이들을 만나 함께 놀이를 했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골목 입구에 열댓 명씩 나와 맞이하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습니다. 영어 공부와 함께 새로운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갑니다. 그들은 서로 친구의 얼굴에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신나 합니다. 이 아이들

마음 속에 그분의 사랑이 저를 통하여 고스란히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고,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어 공부는 다만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 선교는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전 16:14)

두 달여 동안의 한국 방문 중에 두 명의 인도네시아 친구들을 2년 만에 서울의 어느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동안 한국에서 각각 서울대 대학원과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과정을 마쳤습니다. 리아는 곧바로 한국 회사에 취업을 했고, 쉬파(26세)는 좀 더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인도네시아에 돌아가서 교수로 섬기기 위해서는 장학금이 필요한데,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쉬파가 한국에서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리아와 쉬파가 한국에 있는 동안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저희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대로 끝까지 이 친구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돌아오자마자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는 친구들을 아내와 같이 만났습니다. 아내는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그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카이(사진 왼쪽)는 아버지가 자신이 개종한 것을 알고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주말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방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파(21세)는 너무나 삶이 힘들어 믿지 않는 친구와 동반 자해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학업까지도 거의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계속 시파와 카이를 만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곧게 살아내고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들의 세례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 연락처: +62-813-9488-8002, 070-8246-3990 카톡 ID: kalebpark / parksangjun222@gmail.com
- 후원은행 및 계좌 번호: 하나은행 990-090819-187 (문의 02-443-0883, 한국지피선교회 재정간사)

##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기간 중 거의 줌으로만 한국어를 가르쳐 왔는데, 이제 다시 현장으로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수업이 끝난 후 직접 선생님과 재미있게 대화하듯이 공부를 하니깐 많이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라인이 편하기는

하지만, 대면하여 삶을 나누고 아픔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반동의 젊은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지에 대해 궁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 주의 지팡이가 안위하시나이다

한달 남짓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기 위해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다시 넘어져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생전 처음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실려 갔고, 비행기표는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한 달을 더 한국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고나서 지난 11월 말에 인도네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가나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시편의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경험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지팡이 손잡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LED 등이 켜지는데, 그것을 보면서 주의 말씀이 제 발에 등이 된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한 번 저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도제목

1. 한 영혼이 소중함을 귀하게 여겨 한걸 더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가는 선교사가 되도록.
2. 사역 그 자체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향기가 전달되도록.
3. 성은이와 성진이가 내년 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2022년 12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박상준 이숙영 (성은, 성진) 선교사 올림**

- 저희 사역 소식과 기도제목을 공유하는 밴드(BAND)/카카오톡 채널에 가입을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